



Center for Economic Security and Foreign Affairs

경제안보 Review

경제안보 분석

넥스페리아 사태의 경제안보적 시사점

경제안보 현안

미국의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강화 협정 체결 동향 및 시사점

경제안보 연구동향

獨 KAS 보고서, 「동남아에서의 경제적 우위를 둘러싼 중-일 경쟁」

EWS 공급망/에너지 동향

- 中, 희토류 등 수출통제 강화 조치(10.9.) 1년 유예
- 日, 미국과 미나미토리시마 희토류 개발 협력 검토
- 中, 리튬 관련 신규 칠레 합작회사 설립 조건부 승인
- 韓美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 「Joint Fact Sheet」 발표





온라인 다운로드 -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 게시판

https://www.mofa.go.kr/www/brd/m_26799/list.do

경제안보 Review - 메일링 서비스 신청

cesfa@mofa.go.kr

목차

I. 경제안보 분석

임산호 선임전문관

넥스페리아 사태의 경제안보적 시사점

01

1. 넥스페리아 사태 배경 및 동향
2. 넥스페리아 사태 관련 분석
3. 시사점

II. 경제안보 현안

김단비 전문관

미국의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강화 협정 체결 동향 및 시사점

10

1. 배경
2. 미국-4개국(호주, 일본, 말레이시아, 태국)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강화 협정 주요 내용
3. 평가 및 시사점

III. 경제안보 연구동향

이재원 선임전문관

獨 KAS 보고서, 「동남아에서의 경제적 우위를 둘러싼 중-일 경쟁」

17

※ Suarsana, Denis. (2025.9.). How China and Japan are Competing for Economic Dominance in Southeast Asia. Konrad-Adenauer Stiftung.

1. 개요
2. 보고서의 주요 내용
3. 시사점

IV. EWS 공급망/에너지 동향

- 中, 희토류 등 수출통제 강화 조치(10.9.) 1년 유예
- 日, 미국과 미나미토리시마 희토류 개발 협력 검토
- 中, 리튬 관련 신규 칠레 합작회사 설립 조건부 승인
- 韓美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 「Joint Fact Sheet」 발표

넥스페리아 사태의 경제안보적 시사점

임산호 선임전문관

요약

■ 넥스페리아 사태 발발 배경

- 9월 30일 네덜란드 정부는 중국 윈텍 산하의 네덜란드 반도체업체(윈텍이 넥스페리아 지분 100% 보유)인 넥스페리아의 거버넌스 및 기업 내부행위에서 심각한 결함이 발생되었다며 상품가용성법(Goods Availability Act)을 발동해 넥스페리아의 경영권을 제재
- 네덜란드 정부의 조치에 맞서 중국 정부도 10월 4일부터 넥스페리아 중국 공장의 제품에 수출 제한을 부과하면서 글로벌 반도체 및 자동차 산업 공급망에 혼란 발생
- 미국-중국 무역합의에 따라 중국이 넥스페리아 반도체의 공급을 재개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며 (백악관 팩트시트, 11.1) 혼란이 다소 완화되었으며, 이후 중국과 네덜란드 간 협의를 거쳐 11월 19일 네덜란드 정부는 상품가용성법 발동의 중단을 공식 발표
- 그러나 중국 윈텍 측은 완전한 경영권 회복을 위한 네덜란드 정부의 조치를 요구하고 있어 갈등의 씨앗이 남아있다는 평가(11.20)

■ 분석

- 넥스페리아의 반도체는 기술적으로 첨단반도체가 아닌 범용반도체로 분류되며, 수익성이 높은 첨단반도체와 달리 개당 1~2\$ 이하로 매우 저렴함. 높은 생산설비 투자 비용 대비 낮은 수익성으로 다른 제조업체들의 신규 투자가 제한적이고 대체가 어려워 넥스페리아 범용반도체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내에서 숨겨진 병목현상으로 역할
- 넥스페리아는 네덜란드, 독일, 영국의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칩을 중국으로 보내 포장 및 테스트를 거친 후 재수출하는 구조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분업 생산구조는 결과적으로 중국 정부의 정책에 민감성을 키웠다는 평가
- 중국은 해외자산 인수를 통해 영향력을 확장하고 소유한 기업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으나, 해외의 소유권이 통제력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경험 중이며, 외국에서 중국 자본에 대한 경계가 점점 강화되는 추세
 - 금번 넥스페리아 차이나와 네덜란드 본사의 갈등과 같이 중국 모기업의 운영 방침에 대한 반발로 인해 기업 내부 갈등이 확산되는 등 어려움
- 미국의 신규 수출통제 규정인 계열사 규정(Affiliates Rule)*이 미-중 무역합의(10.30)에 의해 1년 유예 되었으나, 유예기간(~'26.11.9) 동안 지분 구조상 중국 기업과 연결된 회사들은 제재 범위와 예외를 둘러싸고 미국 정부와 복잡한 협상과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

* 미국 상무부 산하 국가안보국(BIS)은 상무부의 Entity List에 등록된 기업이 지분의 50% 이상을 보유한 모든 기업들도 자동으로 동일한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는 조치를 시행('25.9.29)

** 미국 정부는 계열사 규정에서 넥스페리아가 예외 자격을 받으려면 넥스페리아 CEO 교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네덜란드 정부에 전달했다고 WSJ 보도(10.14.)

■ 시사점

- 금번 중국의 조치는 범용반도체를 대상으로 한 중국의 첫 번째 보복 조치라는 특징이 있으며, 이번 사태를 통해 중국은 공급망 교란의 원인을 특정 국가로 돌리면서 범용반도체를 무기화하는 전략을 학습
- 이번 네덜란드 사례는 동맹국들로 하여금 미국-중국 전략 구도에서의 노선 표명이 자국의 전략적 자율성을 오히려 제약할 수 있음을 상기하게 되는 계기로 작용 가능
- 지정학적 문제가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산업계의 공급망 전반에 파급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외교적인 채널을 통한 해결과 민관의 지속적인 협력이 더욱 중요해졌음을 보여주는 사례

1. 넥스페리아 사태 배경 및 동향

■ 네덜란드 정부의 넥스페리아 제재(9.30)와 이에 대응한 중국측 수출 규제(10.4)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상당한 영향 발생

- 9월 30일 네덜란드 정부는 중국 윈텍 산하의 네덜란드 반도체업체인 넥스페리아의 거버넌스와 기업 내부행위에서 심각한 결함이 발생되었음을 이유로 상품가용성법(Goods Availability Act)*을 발동해 넥스페리아 제재를 시작

* 상품가용성법은 1952년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발동된 것으로 국가 경제안보 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특정 물품의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에 부여하는 법

참 고

윈텍의 넥스페리아 인수 과정

- 넥스페리아 분사 및 윈텍의 지분 인수 과정
 - (2006) 네덜란드 필립스(Philips)는 반도체 사업부를 NXP Semiconductors라는 이름으로 분사 → (2017) NXP Semiconductors는 자사의 표준제품(Standard Products) 사업부를 중국 투자가 컨소시엄인 JAC Capital 및 Wise Road Capital에 약 27억 5천만 달러에 매각했으며, 이 사업부는 독립법인으로서 넥스페리아(Nexperia)라는 이름으로 설립 → (2018-2019) 중국 윈텍이 약 36억 달러에 넥스페리아 지분 인수
- 넥스페리아가 중국의 주요 반도체 설계 및 제조기업인 윈텍(Wingtech Technology)에 인수된 이후 넥스페리아는 윈텍의 자회사로 운영되어 왔으며, 윈텍의 회장인 장쉐전(Zhang Xuezheng)이 경영권을 행사
 - 윈텍은 중국의 주요 스마트폰 OEM 업체로 알려져 있었으나, 넥스페리아 인수 이후 글로벌 반도체 산업에서 영향력이 확대

- 네덜란드 정부는 넥스페리아 및 산하 30개 법인에 대해 자산, 지식재산권, 사업, 인력 등을 1년 동안 동결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며 사실상 경영권을 장악
- 별도로 넥스페리아 네덜란드 본사의 유럽 경영진은 10월 1일 네덜란드 현지 법원에 긴급 조치를 신청했으며, 네덜란드 법원은 10월 7일 장쉐전(Zhang Xuezheng)을 넥스페리아 CEO에서 해임하고 결정적 의결권을 갖춘 독립적인 이사를 임명하라는 판결
- 장쉐전은 경영권 남용과 부적절한 경영 형태에 대한 의혹에 따라 네덜란드 법원에 의해 10월 7일자로 넥스페리아 CEO에서 해임되었는데, 네덜란드 자산을 중국 법인을 위해 부적절하게 운용했다는 의혹이 포함*

* 2025년 넥스페리아가 약 7~8천만 달러 상당의 웨이퍼만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상하이에 위치한 WingSkySemi라는 웨이퍼 공장에 2억 달러 규모의 주문을 강요하려 했다는 혐의 / 2025년 9월에는 CFO를 포함해 재무 관련 임원 3인의 은행업무 권한을 박탈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 갈등

- 네덜란드 정부의 조치에 맞서 중국 정부도 10월 4일부터 넥스페리아 중국 공장의 제품에 대해 ‘특정 수출 제한’을 부과함에 따라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및 자동차 산업 공급망에 큰 혼란이 발생
- 중국 상무부는 넥스페리아 차이나와 하청업체들이 명시적인 허가 없이 특정 완제품 및 조립품을 수출하는 것을 금지
- 윈텍은 중국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국제 법적 대응을 준비하겠다고 발표했으며, 국영매체인 글로벌타임즈는 네덜란드 정부가 국가안보를 구실로 중국 기업에 상업적 약탈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난
- 윈텍의 Yang Mu 회장에 따르면 2025년 기준 넥스페리아 총 최종제품 생산능력의 약 80%가 중국 본토에 있으며, 중국 본토는 넥스페리아 전체 매출의 48%를 차지

■ 미국-중국 정상회담(10.30)에서도 넥스페리아의 반도체 공급망 혼란이 중요 이슈 중 하나였으며, 미국-중국 무역합의 결과(팩트시트, 백악관, 11.1)에는 중국이 넥스페리아 반도체의 공급을 재개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

- 넥스페리아 사태가 불러온 반도체 공급망 혼란은 이를 미국-중국의 무역협상 의제로까지 끌어올렸으며, 문제의 배경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의 ‘계열사 규정 (Affiliates rule)’의 적용도 1년간 유예(2026년 11월 9일까지)하기로 합의
- 계열사 규정은 상무부의 제재 대상 기업(Entity List)의 외국 계열사(직간접 50% 이상 소유 포함)를 동일한 제재 대상에 포함시켜 규제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넥스페리아의 경우 제재 목록에 올라있는 Entity List에 올라있는 윈텍이 지분 100%를 소유하므로 규제 대상
- 무역합의 이후 중국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위해 기업들에 반도체 공급을 재개하겠다고 밝혔으나(대변인 성명 등), 다른 한편으로 이번 혼란의 책임이 네덜란드 정부에 있으며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네덜란드 정부에 달려있다는 강경 입장 유지

■ 그후 중국-네덜란드 간 여러 차례의 협의가 있었으며, 11월 19일 네덜란드 정부는 상품가용성 법의 중단(suspend)을 공식 발표했으나, 중국은 완전한 경영권 회복을 위한 네덜란드 측의 조치를 요구하고 있어 갈등의 씨앗이 잔존

-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항소법원 산하 기업법정에서는 10월 7일 경영진 조사 절차에 따라 장쉐전(Zhang Xuezheng)을 CEO직에서 해임하고 중립 신탁인에게 권한을 넘기는 판결
- 관련하여 윈텍은 성명을 통해 네덜란드 정부가 법원 개입을 철회하고 경영권 회복을 전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 중(11.20)

2. 넥스페리아 사태 관련 분석

■ 넥스페리아 범용반도체가 갖는 전략적 중요성

- 넥스페리아의 반도체는 기술적으로 첨단반도체가 아닌 범용반도체로 분류되지만, 자동차의 전력관리시스템, 브레이크 시스템, 스티어링 휠(운전대) 및 에어백 제어 등 주요 제어장치는 물론 와이퍼, 조명, 창문 제어 등 차량 내 여러 기능에 폭넓게 사용되면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
- 넥스페리아는 연간 1천억 개 이상의 범용반도체를 생산하는데 개당 수익성이 높은 첨단반도체와 달리 범용반도체의 개당 가격은 1~2\$ 이하*로 매우 저렴하며, 높은 생산설비 투자 대비 낮은 수익성으로 인해 제조업체들이 신규 투자에 소극적인 탓에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내에서 숨겨진 병목현상이 발생

* 저가형 범용반도체(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등은 개당 100원 미만, 중간형 범용반도체(로직IC, MOSFET 등)은 개당 1달러 미만, 특정 사양이 포함된 고성능-차량용 반도체는 1~2달러 이상까지도 판매 가능

- 이 때문에 중국이 향후 범용반도체 분야에서 점유율을 확대할 경우, 향후 다른 국가들은 충격에 취약해질 가능성 존재
- 넥스페리아는 네덜란드, 독일, 영국의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칩을 중국으로 보내 포장 및 테스트를 거친 후 재수출하는 구조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분업 생산구조는 비용 효율적이고 반도체 산업에서 일반적인 형태이나 결과적으로 중국 정부의 정책에 민감성을 키웠다는 평가
 - 넥스페리아의 다이오드, 로직 집적회로(IC)와 같은 저-중복집도 부품의 경우 표준화된 형태로 대체품 모색이 가능하지만, 자동차 등 운송 제품에 사용될 때의 특성상 전자제어장치(ECU) 재인증 및 안전 테스트가 필요해 단기에 대체 어려움
 - 이 때문에 BMW, 폭스바겐 등 독일 OEM들을 중심으로 2025년 말, 2026년 초 차량 출시 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음을 우려

■ 글로벌 시장에서 해외지분 확보 등 방법으로 영향력 확대 중인 중국과 국가안보 관점에서 이를 우려하는 외국 정부·기업이 충돌하는 사례가 관찰

- 2021년 넥스페리아는 6,300만 파운드에 영국 웨일스에 위치한 파운드리 뉴포트웨이퍼팩(Newport Wafer Fab)*의 지분 100%를 인수한 바 있으나, 2022년 국가안보투자법(National Security and Investment Act)을 근거로 한 영국 정부의 조사 대상이 되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지분 매각 처분

* 뉴포트웨이퍼팩은 영국 최대의 파운드리 업체로 자동차용 반도체 부문에서 두각

- 뉴포트웨이퍼팩 인수와 동시에 넥스페리아의 모기업인 윈텍이 뉴포트웨이퍼팩 인수 자금 마련을 위해 중국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영국 정부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술수출을 금지하는 국가안보투자법에 따라 해당 거래의 국가안보 영향을 조사하기 시작
- 2022년 11월, 영국 정부는 해당 거래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넥스페리아에 지분을 최소 86% 매각할 것을 명령했으며, 넥스페리아는 미국 기업인 Vishay(비세이)에 1억7,770만 달러로 매각
- 2023년 11월에 넥스페리아는 에너지 하비스팅 시스템용 반도체를 개발하는 네덜란드 스타트업 기업 NOWI(노위)를 인수했는데, 당시 네덜란드 정부는 2020년 이후 이뤄진 기업 인수건을 소급심사할 수 있는 권한을 담은 법안인 투자심사법(2023.6월 발표)을 들어 노위 인수 건을 전면 심사
 - 당시 넥스페리아 측 대변인은 노위의 기술은 민감하거나 전략적인 기술이 아니므로 투자심사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며, 해당 약 5개월에 걸친 당국의 심사 끝에 노위 인수가 최종 승인

■ 중국은 해외자산 인수를 통해 영향력을 확장하고 소유한 기업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으나, 외국에서 중국 자본에 대한 견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소유한 외국 기업과의 거버넌스 충돌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

- 중국은 기술자립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해외자산 취득을 추진 중이지만, 해외 소유권이 통제력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경험하고 있으며 서방을 중심으로 점점 더 중국 자본에 대한 경계 및 규정이 강화되는 추세

- 금번 넥스페리아 차이나와 네덜란드 본사의 갈등처럼 인수된 이후에도 거버넌스 구조 및 운영 구조 등에서 중국 모기업의 운영 방침에 대한 반발로 인해 기업 내부 갈등이 확산*되는 등 어려움이 존재

* 넥스페리아의 유럽 본사는 10월 26일 대금 미지급 문제를 이유로 중국 모기업인 넥스페리아 차이나에 독일산 웨이퍼 공급을 중단했으며 이로 인해 공급망 혼란 가중

- 이러한 사례들이 중국 기업들로 하여금 중국 내수에서 생산 역량 및 기술 강화를 통해 공급망 회복력을 구축하도록 촉진하고 있으며, 중국이 반도체 산업에서 수직화된 통합 생산구조를 추진하는 또 다른 배경으로 작용

- 해외 자회사를 활용한 중국의 제재 우회를 막기 위한 미국의 새로운 수출통제 규정(계열사 규정, Affiliates Rule)은 미-중 무역합의로 인해 1년간 유예되었으나, 지분 구조상 중국 기업과 연결된 회사들은 제재 범위와 예외를 둘러싸고 미국 정부와 복잡한 협상과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미국 상무부는 2024년 12월 윈텍을 Entity List에 등재했으며, 등재 사유로 미국 및 동맹국의 방위 산업에 중요한 반도체 제조 기술을 획득하려는 시도를 지적
 - 미국 상무부의 해당 결정으로 윈텍은 미국 기술에 접근하기 위해 라이선스 취득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었으나, 넥스페리아 등 윈텍의 자회사들은 직접적인 규제 대상에서 제외
- 미국 상무부는 2025년 9월 29일에 Entity List 규제를 확대하여, Entity List에 등록된 기업이 지분의 50% 이상을 보유한 모든 기업도 자동으로 제한 대상에 포함시키는 조치를 시행했으며 이를 계열사 규정(Affiliates Rule)이라고 명칭
 - 이 규정에 따라, 윈텍이 100% 지분을 소유한 넥스페리아 역시 9월 29일자로 미국의 수출통제 대상에 자동으로 포함되며, 미국산 기술과 제품 수출에 대해 엄격한 통제를 받게 됨
 - 네덜란드 정부가 냉전 시대의 법인 상품가용성 법을 이용해 넥스페리아를 제재한 날씨가 미국 정부의 계열사 규정 시행 바로 다음 날이었다는 점은, 네덜란드 정부가 미국의 수출통제와 넥스페리아의 자율적 운영 사이에서 딜레마에 직면했음을 보여줌
- 네덜란드 정부는 넥스페리아 측 거버넌스의 결함이 상품가용성법 발동의 주요 원인이며 미국 정부의 수출통제 규정 시행일과 날씨가 겹치는 것은 순전한 우연이었다는 입장이나, 관련해 언론 등 외부에서는 미국 정부의 압박이 네덜란드 측에 지속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해석
 - 관련해 미국 상무부 BIS와 네덜란드 국무부와의 과거 정부간 회의(6월)에서 미국 측은 9월 29일 시행되는 미국 Entity List에서 예외 자격을 받으려면 넥스페리아 CEO 교체가 필요하다고 네덜란드 측에 전달한 것으로 WSJ가 보도(10.14.)
- 한편, 미국-중국 무역합의에서 미국 정부의 계열사 규정이 1년 유예되면서 일시적인 공급 리스크는 완화되었으나, 유예에 불과한 만큼 중국 기업과 지분 구조로 연관되어 있는 기업들은 미국 정부와 복잡한 협상과 조정이 필요할 전망이다

3. 시사점

- 금번 중국의 조치는 범용반도체를 대상으로 한 중국의 첫 번째 보복 조치라는 점에서 특징
 - 미국-중국의 반도체 경쟁이 첨단반도체를 위주로 격화됨에 따라, 범용반도체는 상대적으로 관심에서 뒤떨어져 있었으며 범용반도체 수출 제한이 글로벌 공급망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크게 고려되지 않았던 상황

- 가격이 개당 1~2달러 미만인 저가의 성숙 반도체는 개당 수익이 적어 넥스페리아 외 대안이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글로벌 자동차 업체 외 넥스페리아 반도체를 사용하는 수많은 전자제품 관련 제조기업들의 공급망 전반에 큰 혼란을 주고 있는 상황
 - 미국-중국 무역합의 이후 긴장이 일부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넥스페리아 반도체 수급에 차질 발생하고 있는 상황
- 코로나19 팬데믹 때 발생한 반도체 공급 병목현상과 달리 넥스페리아는 특정 용도에 한정된 부품보다는 표준형 부품을 주로 공급하고 있어, 공급처 대체가 불가능한 수준은 아니라는 평가
 - 보쉬, 콘티넨탈, 덴소 등 이종소싱 전략을 사용하는 1차 전자부품 공급업체는 대체 공급업체 (Infineon, ON Semiconductor, ROHM, Renesas, STMicroelectronics 등) 를 적극 검토 중
 - 최근 독일 국가안보위원회에서 독일 자동차 업계의 원자재 공급처 다각화 계획을 세우기로 합의하는 등(Bloomberg), 이번 사태가 중국산 범용반도체 의존도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는 경종으로 다가올 가능성
 - 그러나 범용반도체의 특성상 차량 시스템은 물론 전자제품 전반에 걸쳐 널리 사용됨에 따라 OEM들의 피해를 피할 수는 없으며, 부품 재인증, 조달 조율, 대규모 안전 검증 등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소요할 전망

■ 네덜란드 사례는 동맹국들로 하여금 미국-중국 전략 구도에서의 노선 표명이 자국의 전략적 자율성을 오히려 제약할 수 있음을 상기하게 되는 계기로 작용 가능

- 네덜란드는 중국계 반도체 기업 넥스페리아에 대해 비상조치로 경영권을 장악하는 등 강경한 규제 조치를 시행했으나, 미국 의회에서 일부 조사 의견외 미국 행정부 차원에서의 공개 동조는 없었음
- EU 차원에서도 네덜란드의 조치에 대해 공식적인 단일 입장을 내지 않았고, 다수 회원국은 자국 산업 보호 및 전략적 자율성 유지를 이유로 신중한 관망 자세 유지
- 중국은 네덜란드의 조치가 글로벌 공급망 혼란의 원인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대응해 왔으나, 이번 사태를 통해 중국도 특정 국가를 책임으로 돌리면서 범용반도체를 무기화하여 글로벌 공급망을 교란하는 전략을 학습했을 가능성
- 네덜란드는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글로벌 경제에 미칠 영향과 외교적 중압감 속에서 자국의 강경한 조치를 유지하는 데 한계를 느끼고 기존 노선을 수정했을 가능성

■ 금번 사태는 지정학적 긴장이 민간 산업의 운영과 공급망 전반, 산업계 전반에 파급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외교적인 접근과 민관 간 유기적 협력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사례

- 이번 사례는 수출통제 등 지정학적 긴장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산업계의 공급망 구조사이의 괴리가 드러난 사례로, 오늘날 기업의 경영 전략에 있어 지정학적 리스크 대응이 주요 요소로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

- 특히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전략산업의 경우, 자국 산업 및 자국민 보호 등을 목적으로 외국 정부의 개입 가능성도 상존하는 만큼, **문제 발생 시 외교 채널을 통한 해결이 중요해졌으며, 이에 따라 민간과 정부 간의 지속적인 정보공유 및 협력이 필요**
 - 주요국들은 수출통제, 외국인 투자심사 등 경제안보 관련 법제를 마련해 운용하고 있으며, 네덜란드의 상품가용성법 발동 사례처럼, 기존에는 사실상 활용되지 않던 보호주의적 규정도 전략산업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경향
 - 이러한 규정의 발동은 산업계의 문제를 넘어 국가 간 갈등으로 증폭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전략산업의 경우엔 지정학적 민감성을 동반한 경우가 많아 단일 기업의 접근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
 - 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정부와 지속적으로 공유하며 실제 문제 발생 이전부터 잠재적 위험요소를 사전에 식별하고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등 선제적 리스크 관리 필요

참고문헌

- Paul Triolo. CSIS. (2024.4.30.). Legacy Chip Overcapacity in China: Myth and Reality.
- 서울경제. (2025.11.09.). 넥스페리아 칩 공급 재개됐지만 불씨는 남았다.
- Bloomberg. (2025.11.16.). Germany Is Just Making Too Much Money in China to Back Away Now.
- Digitimes. (2025.10.29.). Commentary: Lessons from Arm China and Nexperia's unraveling.
- EE Times. (2025.11.18.). Dutch Clampdown on Nexperia Puts Europe's Chip Sovereignty Strategy to the Test.
- IOPlus. (2025.10.14.). Nexperia funds misused to prop up CEO's China venture.
- SCMP. (2025.10.14.). China vows to support Wingtech in Dutch national security battle over Nexperia.
- Reuters. (2025.11.21.). China's Wingtech says its control over Nexperia must be restored.
- Wall Street Journal. (2025.10.14.). How U.S. Pressured Netherlands to Oust CEO of Chinese-Owned Chip Maker.

저자 소개

임산호 | shlim22@mofa.go.kr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 선임전문관으로 재직 중이다. 관심 주제는 국제경제, 국제금융, 산업 공급망, 에너지이다. 주요 논문으로 “Optimal bond holding dynamics with hedging against real exchange rate risks”, International Review of Economics & Finance (2023), “미국의 반도체 수출통제가 한국의 對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에 미친 영향 분석” 『무역학회지』 제49권 제5호 (2024), “The Effects of Risk-hedging Motives and Trade Costs on Foreign Bond Holdings”, International Economic Journal (2025)가 있다.

미국의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강화 협정 체결 동향 및 시사점

김단비 전문관

1. 배경

- 미국은 핵심광물 공급망 내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핵심광물 및 희토류 공급처를 다변화하기 위한 양자 협력을 강화 중

- 트럼프 대통령은 APEC 개최(10.31일) 직전 아태지역 주요국(호주, 일본, 말레이시아, 태국)과 핵심광물 공급망의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는 4건의 신규 합의를 발표

[최근 미국의 핵심광물 관련 양자 협력 동향]

체결국	체결 일시	합의 문서
미국-호주	2025년 10월 20일	핵심광물·희토류의 안정적 공급 확보를 위한 프레임워크
미국-일본	2025년 10월 27일	핵심광물·희토류의 안정적 공급 확보를 위한 프레임워크
미국-말레이시아	2025년 10월 26일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 및 투자 촉진을 위한 협력 MOU
미국-태국	2025년 10월 26일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 및 투자 촉진을 위한 협력 MOU

자료: 백악관 홈페이지

- 본 보고서는 최근 체결된 4건의 미국-주요국의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협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미국의 핵심광물 협력 동향에 대해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2. 미국-4개국(호주, 일본, 말레이시아, 태국)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강화 협정 주요 내용

- (미국-호주) 핵심광물·희토류의 안정적 공급 확보를 위한 프레임워크(10.20)

* 「United States–Australia Framework for Securing Supply in the Mining and Processing of Critical Minerals and Rare Earths(2025.10.20)」

- (주요 내용) ▲비축제도 활용 ▲공동 투자 확대 ▲표준기반 거래제도(standards-based system) 등 정책 수단을 통한 양국 간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확대
 - (비축제도 활용) 양국은 기존 비축 수단(미국의 산업 수요 및 비축 인프라, 호주의 핵심 광물 전략 비축량 등)을 활용하여 안정적인 핵심광물 및 희토류 공급에 협력
 - (채굴·가공 관련 투자 가속화) 정부와 민간 자본을 활용하여 양국 내 채굴 및 가공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및 관련 지원을 진행하고 6개월 이내에 우선순위 프로젝트에 최소 10억 달러의 자금을 지원
 - (가격 메커니즘) 비시장적 정책 및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부터 국내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표준기반 거래제도, 최저가격제 등)을 마련하고, 미래 글로벌 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한 동맹국과 협력 확대

[미국-호주 핵심광물 및 희토류 프레임워크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공급 확보	• 미국은 산업 수요 및 비축 인프라, 호주는 핵심광물 전략비축 제도(Critical Mineral Strategic Reserve) 등을 활용하여 핵심광물 및 희토류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협력
채굴 및 가공 단계 투자	• (채굴 및 가공에 대한 투자) 양국은 정부 및 민간 부문을 통해 보증, 대출, 지분투자(equity), 오프테이크 계약(off-take arrangements), 보험 등 다양한 금융 및 정책 수단을 동원하여 관련 프로젝트 자금 및 운영을 지원 - (프로젝트 선정) 광산 채굴·정련·분리·재활용 전 단계를 포함하여 공급망의 공백(gaps)을 해소하기 위한 우선순위 프로젝트를 식별 - (자금 조달) 서명일로부터 6개월 내에 미국 및 호주 내 프로젝트에 최소 10억 달러 규모의 자금 제공 - (투자 지원) 핵심광물 및 희토류 공급망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 메커니즘 개발 - (투자 촉진을 위한 장관 회의 개최) 180일 이내 투자 촉진을 위한 광물·금속 투자 장관 회의(Mining, Minerals and Metals Investment Ministerial)를 개최 • (허가 및 규제) 국내법 범위 내에서 채굴·정련·가공 관련 인허가 절차를 신속화하고, 규제 완화를 추진
가격 메커니즘	• 비시장적 정책 및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부터 국내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표준 기반 거래제도(standards-based system) 및 최저가격제(price floor) 등의 수단을 마련 • 미래 국제 핵심광물 가격 책정 관련 협의 프레임워크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확대
자산 매각 심사	•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광물 및 희토류 관련 자산 매각을 심사·억제할 권한 및 외교적 도구를 개발 및 강화
재활용·스크랩	• 광물 재활용 기술 투자 및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폐광물 관리체계 관련 협력
제3국 협력	• 제3국과의 협력 및 기존 국제 협력 메커니즘 활용
지질자원 매핑	•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미국·호주·제3국 내 광물자원 매핑 협력
신속 대응 체계	• ‘미·호주 핵심광물 공급 안보 대응 그룹(Critical Minerals Supply Security Response Group)’을 신설 / 미국 에너지부 장관 및 호주 자원부 장관이 공동 주재하며, 주요 광물별 공급 취약성을 진단·대응

자료: The White House(2025.10.20.)를 바탕으로 저자 정리(비공식 번역본)

■ (미국-일본) 핵심광물·희토류의 안정적 공급 확보를 위한 프레임워크*(10.27)

* 「United States-Japan Framework for Securing the Supply of Critical Minerals and Rare Earths through Mining and Processing(2025.10.27.)」

- (주요 내용) 기본적으로 미국-호주 프레임워크와 유사한 구조로 ▲공동 투자 확대 ▲고표준 시장 (high-standard marketplace) 구축 등 희토류 및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양국 간 협력 확대
- (채굴 및 가공 투자 가속화) 정부와 민간 자본을 활용하여 양국 내 채굴 및 가공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및 관련 지원을 진행하고 프레임워크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양국 및 동맹국 구매자에게 최종 제품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는 프로젝트에 재정 지원
- (프로젝트 선정) 영구자석, 배터리, 촉매, 광학 소재 등 파생 제품을 포함하여 공급망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관심 프로젝트를 공동 발굴
- (가격 메커니즘) 각국은 국내 광물 시장을 비시장 정책 및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채굴·가공 및 거래의 실제 비용을 반영하는 고표준 시장(high-standard marketplace)을 구축하고 기타 가격 책정 조치를 마련

[미국-일본 핵심광물 및 희토류 프레임워크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공급 확보	• 양국의 금융지원제도, 무역 조치, 비축시스템을 활용해 국내 산업에 필요한 광물 공급 안정화 지원 • 공급망 참여 기업의 다변화를 위한 업·다운스트림 기업 간 대화 촉진
채굴 및 가공 단계 투자	• (채굴 및 가공에 대한 투자) 양국은 정부 및 민간 부문을 통해 보증, 대출, 지분투자(equity), 오프테이크 계약(off-take arrangements), 보험 등 다양한 금융 및 정책 수단을 동원하여 관련 프로젝트 자금 및 운영을 지원 - (프로젝트 선정) 희토류·핵심광물 이외 영구자석, 배터리, 촉매, 광학소재 등 파생 제품을 포함하여 공급망 공백(gaps) 해소 목적의 우선순위 프로젝트 식별 - (자금 조달) 서명일로부터 6개월 내에 양국이 공동 선정한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지원 조치 시행 / 양국 및 유사입장국에 대한 최종재 제공 목적 - (투자 지원) 민간 자본을 동원하고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 메커니즘 개발 - (투자 촉진을 위한 장관 회의 개최) 180일 이내 투자 촉진을 위한 광물·금속 투자장관회의 (Mining, Minerals and Metals Investment Ministerial) 개최 • (허가 및 규제) 국내법 범위 내에서 채굴·정련·가공 관련 인허가 절차를 신속화하고, 규제 완화를 추진
가격 메커니즘	• 비시장적 정책 및 불공정 무역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책임 있는 채굴·정제·거래 원가를 반영한 고표준 시장(high-standard marketplace) 구축, 필요시 이를 위한 가격 책정 조치(price measures) 마련
자산 매각 심사	•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광물 및 희토류 관련 자산 매각을 심사·억제할 권한 및 외교적 도구를 개발 및 강화
재활용·스크랩	• 광물 재활용 기술 투자 및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폐광물 관리체계 관련 협력
지질 매핑	•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미국·일본·제3국 내 광물자원 매핑 협력

구분	주요 내용
신속 대응 체계	• ‘마·일 핵심광물 공급안보 신속대응그룹(Critical Minerals Supply Security Rapid Response Group)’ 신설 / 미국 에너지부 장관과 일본 경제산업상이 공동 주재하며, 주요 광물별 공급 취약성을 진단·대응
비축 체계	• 양국의 상호 보완적인 비축체계 검토

자료: The White House(2025.10.27.)를 바탕으로 저자 정리(비공식 번역본)

■ (미국-말레이시아)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 및 투자 촉진 협력 양해각서(MOU)*(10.26)

* 「MEMORANDUM OF UNDERSTANDING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GOVERNMENT OF MALAYSIA CONCERNING COOPERATION TO DIVERSIFY GLOBAL CRITICAL MINERALS SUPPLY CHAINS AND PROMOTE INVESTMENTS(2025.10.26.)」

- (주요 내용) 희토류 및 핵심광물 관련 ▲정보 공유 ▲투자 우선순위 부여 ▲시장 보호 조치 및 규제 협력 강화
 - ▲매각 광물 자산 및 투자 프로젝트 선정에 대한 미 기업 우선 투자 기회 부여 ▲희토류 자산 매각 심사 강화 ▲희토류 등 핵심광물 관련 비시장 정책 및 불공정 거래 관행 방지를 위한 조치 도입 등

[미국-말레이시아 핵심광물 및 희토류 프레임워크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정보 및 기술 공유	• 양국은 말레이시아의 광물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제모범사례(best practices)에 대한 정보·기술 등을 공유 • 상호 관심사업을 발굴·지원하며, 말레이시아 광물 자산 또는 말레이시아 본사 기업이 참여하는 핵심광물 프로젝트에 미국의 투자를 우선 고려
규제 협력 및 투자환경 개선	• 인허가 절차 간소화, 공정한 투자자 대우, 프로젝트 지속가능성 확보
자산 매각 심사	• 양국은 희토류·핵심광물 자산 매각 및 외국인 투자 심사에 관한 제도적 검토권을 강화
가격 메커니즘	• 비시장적 정책과 불공정 무역을 방지하기 위해 ‘고표준 시장(high-standard marketplace)’을 구축, 가격 하한(price floor) 또는 유사 조치를 도입
분기별 협의체 운영	• 실무급 회의를 정례화하고, 필요 시 긴급(ad hoc) 협의체 소집 가능

자료: The White House(2025.10.26.)를 바탕으로 저자 정리(비공식 번역본)

■ (미국-태국)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 및 투자 촉진 협력 양해각서(MOU)*(10.26)

* 「MEMORANDUM OF UNDERSTANDING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GOVERNMENT OF THE KINGDOM OF THAILAND CONCERNING COOPERATION TO DIVERSIFY GLOBAL CRITICAL MINERALS SUPPLY CHAINS AND PROMOTE INVESTMENTS(2025.10.26.)」

- (주요 내용) 말레이시아 MOU와 기본적으로 동일한 구조로, 희토류 및 핵심광물 관련 ▲정보 공유 ▲투자 우선순위 부여 ▲시장 보호 조치 및 규제 협력 강화
 - 단, 태국 MOU는 ▲국가 및 지방 정부 기관 간의 협력 강화 및 ▲태국 내 핵심광물 관련 프로젝트에 미국의 투자 접근성을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데 중점
 - 또한 원자재 수출에만 국한되지 않고 태국 내 부가가치 산업 및 가공 산업 지원 강조

[미국-태국 핵심광물 및 희토류 프레임워크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정보 및 기술 교류	• 양국은 태국의 광물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제모범사례(best practices)에 대한 정보·기술을 교환하고, 필요시 우선순위 프로젝트 관련 협력 • 미국 기업에 대해 태국 내 또는 태국 기업이 보유한 핵심광물 자산 매각 시 우선투자 기회 부여 • 프로젝트에는 기술이전, 역량 강화(capacity building), 현지 인력훈련 조항 포함
정책 및 규제협력	• 인허가 절차 간소화, 투자 안정성 확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 협력체계 구축 등 투자환경 개선 포함
자산매각 심사	• 안보상 이유로 핵심광물 및 희토류 자산 매각을 사전 심사·억제할 수 있는 법적 권한 신설 또는 강화
가격 메커니즘	• 비시장적 정책과 불공정 무역을 방지하기 위해 ‘고표준 시장(high-standard marketplace)’을 구축, 가격 하한(price floor) 또는 유사 조치를 도입
투자정보 사전 통보	• 양국은 핵심광물 관련 입찰(tenders) 또는 프로젝트 정보를 다른 투자자보다 우선적으로 상호 통보
분기별 협의체 운영	• 실무급 회의를 정례화하고, 필요시 긴급(ad hoc) 협의체 소집 가능

자료: The White House(2025.10.26.)를 바탕으로 저자 정리(비공식 번역본)

3. 평가 및 시사점

■ 미국의 중국 핵심광물 공급망 영향력 완화를 위한 국제 공조 확대 추세

- (중국 견제) 미국은 4건의 핵심광물 협정에 공통적으로 ▲투자심사 제도 및 ▲가격 메커니즘 등을 명시하며 국제 공조 기반의 대중 견제 기조 강화
 - (투자심사 제도) 중국의 신규 광산 자산 인수 및 제3국 시장진출을 제한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 강화
 - (가격지원 메커니즘) 가격 메커니즘 도입을 통해 중국을 배제한 유사입장국 간의 핵심광물 시장을 구축하는 방안 추진
- (협력국 확대) 대중 의존도 완화 목적의 美-ASEAN 국가 간 핵심광물 협력 확대

- 미국-태국, 미국-말레이시아의 MOU는 미국이 ASEAN 내 국가로 핵심광물 공급망을 다변화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의 일부로 평가

※ 아세안은 풍부한 매장량, 저비용 생산 기반, 정제 가공 역량 등으로 중국 외 공급원으로 주목 / 이외, 미국이 아세안에서 핵심광물 관련 자체 투자·조달 거점을 재구축하지 않으면, 핵심광물 관련 정련·물류의 중국 레버리지가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도 지속 제기(CSIS, 2025)

- 단, 이번 협정은 법적 구속력은 없는 비구속적 협정으로, 태국, 말레이시아 내 ▲전략적 자율성 유지 ▲인프라·정제 역량 부족 ▲정치·규제 리스크 등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는바 실질 협력 동향에 대한 지속 관찰 필요

※ 미국-호주, 미국-일본 협력 기반으로, 중국 외 대체 공급처 확보가 시급한 핵심 광물(희토류 등)의 정제·가공 역량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보다 가속화될 전망

- 이외 미국은 카자흐스탄(11.6), 사우디아라비아(11.17)와도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강화 MOU를 체결하며 전략 광물 보유국*을 중심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추세

* 카자흐스탄은 우라늄, 사우디아라비아는 중희토류가 다량 매장

■ 미국-호주, 미국-일본 협력 기반으로, 중국 외 대체 공급처 확보가 시급한 핵심 광물(희토류 등)의 정제·가공 역량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보다 가속화될 전망

- 미국의 호주, 일본과의 핵심광물 협력 프레임워크는 ▲금융 지원 ▲가격 보조 메커니즘 등을 통해 동맹국 내 채굴·정제·가공 역량 투자를 가속화 할 전망

- (자금조달 기반 강화) 미-호, 미-일 프레임워크는 공적 금융, 지분 투자, 대출 보증 등 복합적인 금융 수단을 활용한 투자 지원을 명시

※ 미국 수출입은행은 호주에서 핵심광물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총 22억 달러 이상의 잠재적자금 조달에 대한 7건의 의향서를 발행하였으며, 50억 달러에 이르는 민간투자를 유도할 전망

- (시장 안정성 강화) 가격 하한제·표준 기반 시스템 도입을 통해 핵심광물 가격 하락 리스크를 완화하고 프로젝트의 경제성 확보를 지원할 전망

- 특히, 정제·가공 역량확보가 시급한 핵심광물(희토류, 갈륨 등)은 금융·정책 지원을 기반으로 프로젝트 추진 속도가 가속화될 가능성

- 호주 정부는 프레임워크 체결 이후 호주 내 ▲갈륨 회수 프로젝트* ▲희토류 프로젝트**에 대한 지분 투자 공식 발표(10.21)

* 미국과 호주 정부는 Alcoa Corporation과 계약 체결을 통해 연간 약 100톤의 생산 용량을 갖춘 첨단 갈륨 공장 건설에 합작 투자 발표

** 호주 정부는 Arafura Rare Earth는 놀란스 네오디뮴-프라세오디뮴(NdPr) 산화물 프로젝트에 1억 달러 규모의 지분 투자 발표

참고문헌

- SCMP(2025.10.29), Rare earth diplomacy: how Trump is using his Asia tour to secure critical mineral supplies
- CSIS(2025.10.31), Ahead of APEC, Trump Signs Flurry of Bilateral Minerals Agreements on Asia Tour
- SFA Oxford(25.10.28), Japan-US Rare Earths Agreement : Critical minerals, policy, and the energy transition, <https://www.sfa-oxford.com/market-news-and-insights/japan-us-rare-earths-deal-critical-minerals-supply-chain/>
- The White House(2025.10.20), United States-Australia Framework For Securing of Supply in the Mining and Processing of Critical Minerals and Rare Earths
- The White House(2025.10.26), MEMORANDUM OF UNDERSTANDING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GOVERNMENT OF MALAYSIA CONCERNING COOPERATION TO DIVERSIFY GLOBAL CRITICAL MINERALS SUPPLY CHAINS AND PROMOTE INVESTMENTS
- The White House(2025.10.26), MEMORANDUM OF UNDERSTANDING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GOVERNMENT OF THE KINGDOM OF THAILAND CONCERNING COOPERATION TO DIVERSIFY GLOBAL CRITICAL MINERALS SUPPLY CHAINS AND PROMOTE INVESTMENTS
- The White House(2025.10.27), United States-Japan Framework For Securing the Supply of Critical Minerals and Rare Earths through Mining and Processing

저자 소개

김단비 | dbikim22@mofa.go.kr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 전문관으로 재직 중이다. 관심 주제는 첨단·신흥기술, 공급망, 미중기술경쟁이 있다. 주요 연구로는 “한국형 발전모델의 탐색과 성장동력 정책의 전환- 글로벌 경쟁 분석 및 국가 포지셔닝 전략”, 과학기술정책연구원(2019), “글로벌 분업체계 변화에 대응하는 R&D 전략의 전환”, 과학기술정책연구원(2020), “인공지능 기술 전망과 혁신 정책 방향”, 과학기술정책연구원(2019)이 있다.

獨 KAS 보고서, 「동남아에서의 경제적 우위를 둘러싼 중-일 경쟁」

이재원 선임전문관

※ 원문: Suarsana, Denis. (2025.9.). How China and Japan are Competing for Economic Dominance in Southeast Asia. Konrad-Adenauer Stiftung.

1. 개요

- 미-중 무역 경쟁이 심화되면서 생산 기지 이전과 수출 시장 확보라는 대안으로 동남아 지역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동남아 지역에서 중국이 경제적 우위를 높여감에 따라 일본도 경제적 관여를 강화
- 이러한 배경을 두고 동남아에서 경제적 우위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경쟁 양상에 주목한 독일 콘라드 아데나우어 재단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소개
 - 일본의 정책에 대한 추가적 설명을 위해 독일 국제안보연구소의 보고서를* 참고하여 일본의 인태전략, 경제 및 인프라 정책 내용도 정리

* Sakaki, Alexandra. (2025.6.). "Japan in Southeast Asia: Countering China's Growing Influence." SWP Research Paper. Stiftung Wissenschaft und Politik.

2. 보고서의 주요 내용

- 중국과 미국이 글로벌 무역 질서의 원칙을 훼손하고 국제경제시스템 전체를 뒤흔드는 상황에서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관심 증대
 - 중국은 불공정 관행과 수출 기업에 대한 국가보조금 제공으로 공정하고 개방된 무역이라는 원칙을 훼손하고 있으며,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위협을 통해 분업화된 국제경제시스템 전체를 뒤흔드는 상황
 - 미국과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경제 대국을 찾기는 어려우나, 중국 내 시설을 동남아국가로 이전시키는 차이나+1 전략을 통한 중국 의존도 감소 또는 미국 관세에 대응하면서 신규 시장을 창출한다는 관점에서 동남아시아에 관한 관심 증대

- 한편 중국과 일본은 일찍이 기업의 이익과 무역·경제·개발 협력을 통합하는 포괄적인 동남아 전략을 수립하고 다수의 동남아 국가들과 경제적 협력을 확대한바, 양국의 동남아 협력 사례를 참고할 필요성 다대

■ 중국은 2000년대 초 세계화 전략인 ‘저우추취(走出去, Going Out) 전략을 토대로 국영기업의 해외 투자, 해외 공급망 구축, 신시장 개척을 장려하였으며, 2013년 일대일로 이니셔티브(BRI)를 통해 글로벌 인프라 네트워크를 구축

- 중국이 글로벌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대상국은 자국 인프라 투자를 위해 외국의 투자에 의존하고 원자재도 풍부한 국가들이었으며, 중국은 BRI를 통해 글로벌 인프라 선도국으로 부상

- 특히, BRI 동남아 프로젝트들은* 중국의 국영기업과 동남아국가(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미얀마 등) 국영기업 간 협력으로 추진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중국은 동남아 시장 접근을 확대

* 중국 BRI 기반 동남아 인프라의 사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반둥 고속철도, 라오스-중국 철도, 필리핀 비콜(Bicol) 남부 철도 사업, 캄보디아 프놈펜-시아누크빌 고속도로, 캄보디아 씨엠립 앙코르 국제공항, 말레이시아의 말레이시아-중국 관탄(Kuanyan) 산업단지 등

- 다만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의 국영기업 간 협력 과정에서 非중국 기업이 배제되고 공정한 경쟁이 훼손되는 등 불투명한 거버넌스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그 일례로 인도네시아는 고속철도 사업자를 일본이 아닌 중국 기업으로 선정

※ 일본은 사업의 타당성에 의구심을 표명하였고 이후 일본은 양질의 인프라 파트너십(Partnership for Quality Infrastructure) 이니셔티브를 출범

- 한편 중국은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국영기업 외에도 민간 기업의 동남아 진출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였으며 중국 기술기업인 알리바바, 화웨이, BYD가 동남아에서 급격히 시장 지위를 확장

* 2001년 WTO 가입 이후 아세안-중국 자유무역지대(ACFTA)를 제안하고 2010년 관련 협정의 발효로 ACFTA가 출범하였으며, 세계 최대 FTA인 RCEP에도 참여

- 그 결과, 중국과 동남아의 교역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중국은 동남아의 가장 중요한 경제 파트너로 등극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국은 동남아 공급망을 점차 장악

- 중국의 동남아 수출 중 80% 이상이 산업 품목이고 2021년 기준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은 산업 중간재 전체 수입의 30%를 중국에서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중국 기업의 미국 관세 회피를 위한 동남아 이전으로 그 비중이 더욱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

■ 일본은 아시아 최대 경제 대국의 지위를 중국에 빼앗긴 이후, 대외 경제 정책의 근본적 변화에 착수하고 중국의 부상에 대한 대응책, 특히 동남아에서 증가하는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과 독점적 지위를 예방할 방안을 적극 모색

- 2016년 일본은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응하면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FOIP) 전략을 개발하고, 이를 동남아 국가들에 대한 일본의 투자를 유입시키는 프레임워크로 활용

- FOIP는 ▲자유무역과 항행의 자유 원칙 위에 세워진 규칙 기반 질서 유지 ▲물리적·제도적·인적 연결성을 통한 경제적 번영의 확보 ▲역량 강화 지원, 인도주의적 지원, 재난 구호 등을 통한 평화·안보 확보 ▲기후·환경·식량·에너지·보건·사이버 등 공공재 보호라는 4대 비전으로 구성되었으며, 일본은 동남아를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의 핵심축(linchpin)으로 표현할 만큼* 동남아를 FOIP의 주요 공간으로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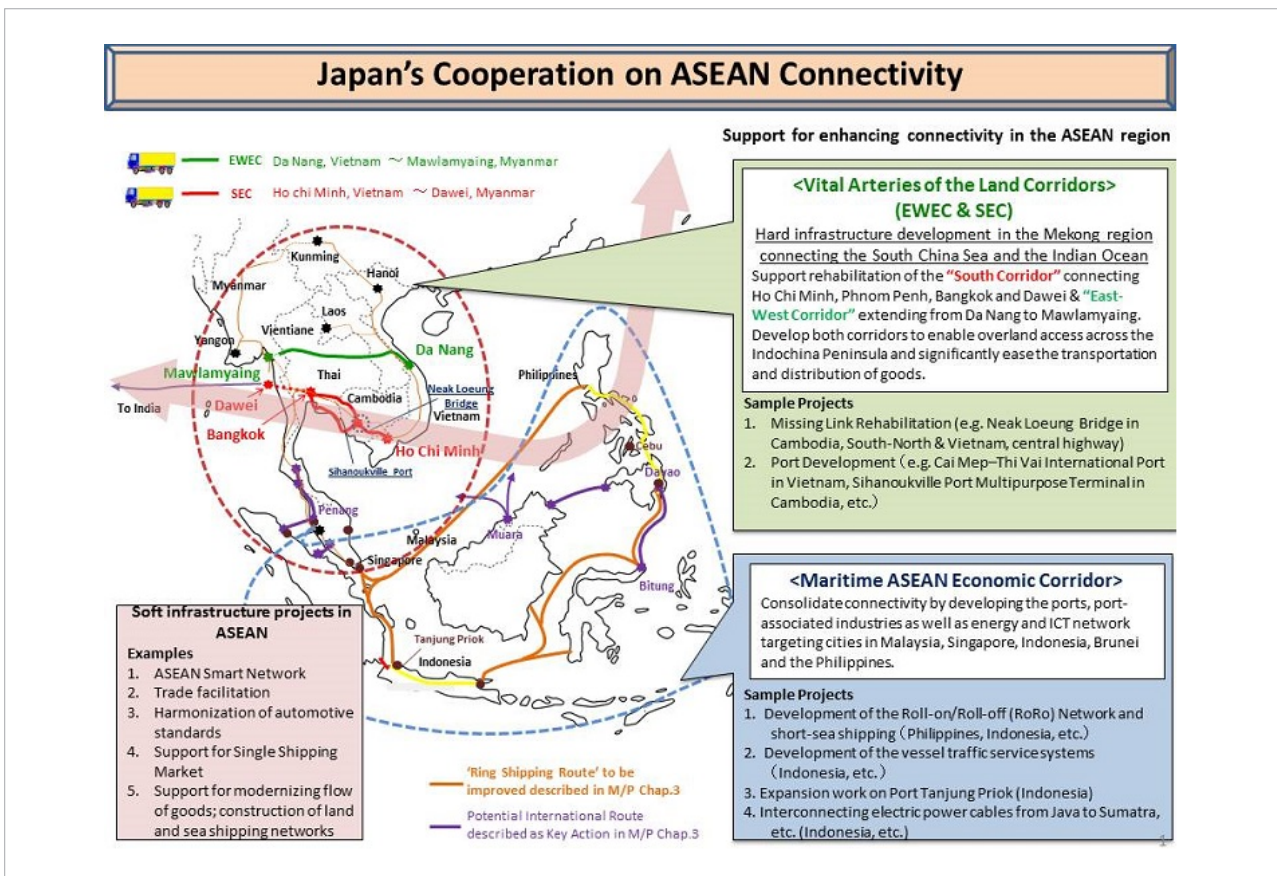
* '23.12. 일본-아세안 도쿄 정상회담 기시다 총리 발언

- FOIP를 배경으로 일본은 아베 2기(2012-2020)에 CPTPP를* 주도해왔으며, 2015년에는 양질의 인프라 파트너십(Partnership for Quality Infrastructure) 이니셔티브를 출범시키면서 품질에 중점을 두는 방식으로 자금량을 앞세우는 중국의 BRI에 대응

* 일본은 일본 경제의 부흥, 규칙 기반 글로벌 무역 시스템 강화, 글로벌 보호주의 대응, 미국의 TPP 탈퇴 후 중국에 대한 경제적 견제 수단을 위해 CPTPP를 추진

- 당시 아베 총리는 일본이 아세안에서 단기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겠다고 강조한 바 있고, 2016년 일본이 G7 의장국을 맡았을 때 양질의 인프라 촉진을 위한 공통 원칙을 채택 / 단, 일본은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기보다는 양과 질을 모두 강조하면서 아세안 인프라 입찰에서 중국의 대안을 제시하고 중국이 글로벌 표준을 받아들이도록 간접적 압력을 행사

[일본의 아세안 연결성 강화를 위한 경제회랑 협력 도식도]



자료: Mission of Japan to ASEAN <https://www.asean.emb-japan.go.jp/asean2025/jpasean-ec03.html>

- 구체적으로 일본은 아세안 연결 운송 인프라 추진 사례로 동남아 지역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동서 경제회랑 EWECA ▲남부 경제회랑 SEC 구축에 협력하면서 중국이 집중하고 있는 남북 경제회랑과 대조적인 접근을 취하고, 2024년에는 필리핀에서 미국과 협력하여 ▲루손 경제회랑 (Luzon Economic Corridor)을* 구축하는데 합의
- * 루손 경제회랑은 반도체, 전기차와 배터리 생산에 필수적인 니켈, 코발트, 구리, 보크사이트 등 핵심광물 매장량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선택된 것으로 알려짐
- 일본의 아세안 인프라 금융은 중추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되는데 2022년 일본은 아세안 최대 공여국으로 40억 달러를 공적기금으로 제공하였으며 이는 중국의 아세안 인프라 금융을 10억 달러 이상 초과한 것으로 평가
- 한편 2022년 일본이 제정한 경제안전보장추진법(ESPA)의 핵심 요소인 공급망 다변화(특정중요물자의 안정적 공급 확보)는 2020년 코로나19로 중국발 공급망 단절 발생에 대응해 긴급 편성된 해외 공급망 다변화 사업(Overseas Supply Chain Diversification Project)이 법제화된 사례
 -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일본의 해외 공급망 다변화 사업은 동남아에서 124개 사업을 지원
 - ESPA는 핵심 원자재에 대한 안정적 접근 확보 외에도 핵심 인프라의 신뢰성 및 지속성 확보, 핵심 기술 개발 지원을 모색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국내 생산 확대를 위한 보조금과 연구개발 기금을 마련하고 전략 산업을 위한 글로벌 공급망 투자도 독려

3. 시사점

- 동남아 지역에서 중국의 증대되는 경제적 영향력에 맞서기 위해 일본이 추진해온 대외경제정책 사례들은 지역 전략과 개방적인 무역 정책, 그리고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경제안보 관련 정책이 통합적으로 추진될 필요성을 제기
- 또한 최근 일본 다카이치 내각이 경제안전보장추진법 개정을 검토하면서 “해외 경제안보 지원 (Overseas Economic Security Assistance, OESA)”이라는 새로운 틀을 도입할 계획이라는 일본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주목(読売新聞オンライン 2025/11/7)
 - 검토 중인 OESA의 도입안의 배경은 중국이 글로벌 사우스(신흥개도국) 국가들에서 항만 운영권을 확보하는 등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대응으로, 그 방안은 중요 물자 수송로 확보를 위해 해외 항만 보수·정비 사업 등을 수주한 일본 민간 사업자에게 정부가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며, 그 지원 대상은 항만뿐만 아니라 해저케이블 부설과 같은 해양 영역의 중요 민간사업까지 확대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진 상황
- 동남아를 공급망 다변화의 거점으로 삼는 일본의 사례는 공급망 안정화가 품목의 수급 여부 등 특정 상품에 대한 모니터링과 대응책 마련에 그치지 않고, 공급과 수요를 연결하는 통로를 마련하고 안정적인 교역이 보장되는 공간을 창출해 가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공

■ 한편 미-중이 협상을 통해 수출통제를 1년간 유예하는 등 일시적 휴전이 진행되고 있으나, 역설적으로 주변부인 동남아 지역을 무대로 국지적인 경쟁이 심화되고 경제적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리스크를 경계하면서 대응책 마련 필요

- 미국 시장에 대한 접근이 여전히 제한된 중국 기업들이 1년의 유예 기간 동안 재고 소진 및 판로 다변화를 위해 동남아 시장에 저가 물량을 쏟아내고 중국 기업들이 동남아에 생산 기지 정착을 공고히할 가능성 존재
 - 이와 관련 미국은 중국에 대한 직접 타격을 유예하는 대신 동남아를 경유한 우회로, 즉 차이나+1 전략에 대한 감시(엄격한 원산지 규정 및 수출통제 동참 요구 등)를 강화해갈 전망
- 한편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와 일본의 견제가 심화되면서 동남아 국가들도 자국의 경제적 이익과 산업 고도화를 추진하고자 하며, 이 과정에서 동남아 국가들이 첨단기술의 이전 등을 모색하면서 제3의 대안으로 한국과의 협력을 검토할 수 있어, 협력의 틈새 공략 필요

참고문헌

- Suarsana, Denis. (2025.9.). How China and Japan are Competing for Economic Dominance in Southeast Asia. Konrad-Adenauer Stiftung.
- Sakaki, Alexandra. (2025.6.). “Japan in Southeast Asia: Countering China’s Growing Influence”. SWP Research Paper. Stiftung Wissenschaft und Politik.
- Mission of Japan to ASEAN. <https://www.asean.emb-japan.go.jp/asean2025/jpasean-ec03.html>
- 読売新聞オンライン. (2025.11.7.). 経済安保法改正へ…海外での港湾整備など民間の事業支援や医療へのサイバー攻撃対応強化など. <https://www.yomiuri.co.jp/politics/20251106-OYT1T50192/>

저자 소개

이재원 | jaewonlee@mofa.go.kr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 선임전문관으로 재직 중이다. 관심 주제는 미중 경쟁, 기술 동맹, 경제제재와 수출통제이다. 주요 논문으로 “미중 경쟁 시기의 동맹 기반 반도체 수출통제.” 『국제지역연구』 33, no.3 (2024), “보장과 통제: 1987년 수출통제 양해각서로 본 한미동맹의 교환 메커니즘.” 『한국과국제정치』 37, no.3 (2021)이 있다.

EWS 공급망/에너지 관련 모니터링 결과

(기간: 2025.11.5.~2025.11.12.)

※ 외교부는 핵심품목들의 글로벌 공급망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재외공관 조기경보시스템(Early Warning System, EWS)을 운영 중이며 경제안보외교센터에서 별도 취합한 경제안보 관련 해외 동향을 종합하여 주요 동향 및 표로 정리

■ 中 정부, 희토류 등 수출통제 강화 조치(10.9) 1년 유예 발표(11.7 / 11.9)

● (주요 내용) 상무부 공고 품목의 수출통제 시행 잠정 정지

- (희토류 등 수출통제) 中 상무부가 발표('25.10.9일)한 6건*의 수출통제 조치 시행 잠정 유예(2025.11.7일~2026.11.10일)

* 중측은 6개의 공고를 통해 ▲초경질 재료 ▲희토류 설비 및 원부자재 ▲5종 중희토류 ▲배터리 및 음극재 관련 품목의 수출통제 조치 및 ▲희토류 수출통제 역외적용 ▲희토류 기술통제 조치 등을 발표

- (대미 수출통제) 中 상무부가 발표('24.12.3일)한 對美 수출금지(갈륨, 게르마늄, 안티몬 등) 및 수출 심사 강화(흑연) 조치 시행 잠정 유예(2025.11.9일~2026.11.27일)

● (평가) 양국의 통상 갈등 완화를 위한 상호 유예 조치의 일환으로 평가

- 미·중 정상회담 이후 양국은 조선·해운 분야의 상호보복 조치 유예, 미국산 대두 구매 재개 등 갈등 완화 조치를 연이어 발표
- 단, 이번 유예 조치에도 불구하고 中 정부의 희토류 등 핵심광물의 국가 전략 자산화*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

* 中 정부는 「희토류 관리조례」 등에 근거하여 희토류 채굴 및 제련·분리 총량을 관리중이며, 「광물자원법」 개정(25.7월 시행)을 통해 광물자원 관리 원칙에 국가안보 관련 조항을 신설

■ 日 다카이치 총리, 미국과 미나미토리시마* 희토류 개발 협력 검토

* 도쿄 남동쪽 약 1900km 해역으로, 디스프로슘 등 희토류 약 1600톤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세계 3위 매장량)

● (주요 내용) 다카이치 총리는 참의원 본회의에서 미국과 미나미토리시마 희토류 개발 관련 구체적 협력 방안 검토 언급(11.6)

- 최근 미·일은 핵심광물·희토류 확보 프레임워크(10.28일)를 통해 희토류와 핵심 광물의 채굴·분리·가공 전반의 공급망 협력 강화에 합의
- 일본 정부는 2027년 이후 일일 350톤 시범 채굴, 2028년 상업 생산 계획

■ 中 시장총국, 칠레 국영 구리회사(Codelco)와 칠레 화학광업회사(SQM)의 리튬 관련 신규 합작회사 설립 조건부 승인 발표(11.10)

- (주요 내용) 설립 승인 요건으로 향후 10년간 탄산리튬 관련 ▲최소 공급량 보장 ▲가격 상한제 ▲경쟁 독립성 유지 조건 부가
 - (최소 공급량 보장) 중국 고객에게 최소 규모의 연간공급량 보장
 - (가격 상한제) 중국 기업과의 계약시 공급가격이 시장가격의 일정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가격 상한 조건 명시
 - (독립성 유지) 다른 사업자와 가격·비용·전략 등 정보 교환 금지
- (평가) 中 정부는 가격 변동성 및 공급 부족 관리를 위해 엄격한 수준의 승인 조건을 부가한 것으로 평가(中의 칠레 탄산리튬 수입의존도 75%) / 승인 조건에 따라 향후 공급 부족 발생시 中 기업에게 우선 공급 전망

■ 韓美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 「Joint Fact Sheet」 발표(11.13)

- 트럼프 대통령은 11.13일 백악관 홈페이지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회담 관련 공동 팩트시트’ 설명자료 발표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 경제·통상 분야 주요 내용》

- (핵심 산업의 재건 및 확장) 지난 7월 양국 정상의 ‘한국 전략 무역 및 투자 합의’(The Korea Strategic Trade and Investment deal)를 재확인
- (상업적 유대 강화) 양 정상은 양국 간 굳건한 경제적 파트너십에 대한 민간 부문의 신뢰를 반영하는 전략 분야에서의 일련의 상업적 공약들을 환영함
- (상호적 무역 촉진) 양 정상은 최근 발표된 합의가 상호호혜적 무역 및 투자 확대라는 공동 목표를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함
- (경제적 번영 수호) 양국 정상은 양국의 경쟁력 유지와 안전한 공급망 확보를 위해 경제 및 국가안보 공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함

■ EWS 공급망

국가	일자	내용
중국	11.5.	[미중관계] 국무원 및 상무부, 中·美 정상회담 후속 조치 발표 : ▲미국산 농산품 추가 관세 부과 조치 중단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24% 추가 관세 부과 유예 1년 연장 ▲31개 미국 기업 대상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조치 조정 등
	11.7.	[미중관계] 상무부 및 해관총서,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 조치(10.9) 등 1년 유예 발표
	11.7.	[원자재] 해관총서, 주요 원자재 수입 가격 하락 발표 : ▲철광석 10.7% 하락 ▲원유 12.1% 하락 ▲석탄 24.5% 하락 ▲천연가스 8.8% 하락 등
	11.9.	[미중관계] 상무부, 對美 이중용도품목 수출통제 강화 조치*(2024.12.3) 1년 정지(유예) 발표 * 對美 갈륨, 게르마늄, 안티몬 등 원칙적 수출금지 및 흑연 수출통제 엄격화
	11.10.	[제재] 상무부, 한화오션 미국 내 자회사에 대한 반제재 조치 1년 유예 발표
	11.10.	[리튬] 시장총국, 칠레 국영 구리회사(Codelco)와 칠레 화학광업회사(SQM)의 신규 합작회사 설립 조건부 승인 발표 : 향후 10년간 ①최소 공급량 보장 ②가격 상한제 ③경쟁 독립성 유지 및 정보 교환 금지 등 조건 부가
	11.10.	[투자] 국무원 판공청, 「민간투자 발전 촉진 조치」 발표
미국	11.11.	[자동차] 중국자동차공업협회(CAAM), 중국 신에너지차 판매량 점유율 50% 초과(2025.10월 기준) : 신에너지차 판매량 171.5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 및 전체 신차 판매량의 51.6% 차지한다고 발표
	11.4.	[선거] 미국 내 일부 지역 비정기 선거(off-year election) 실시 : ▲버지니아 및 뉴저지 주지사 선거 ▲뉴욕 시장 선거 ▲캘리포니아 주민투표 등 실시
	11.4.	[관세] Trump 대통령, ▲對中 펜타닐 관세 20%→10% 인하 행정명령 ▲對中 고율 상호관세 부과 유예 지속 행정명령 서명
	11.4.	[무역합의] 유럽의회 Lange 국제무역위 의장, ▲15% 관세율 상한 및 ▲일몰조항* 도입 등 요구(Inside U.S. Trade) * 18개월 이내 보다 포괄적인 무역 협정이 체결되지 않을 시 현재 미국과 EU간 무역 프레임워크 종료
	11.4.	[기후] 행정부,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 고위급 대표단 불참 입장 표명 보도(CNN)
	11.5.	[셋다운] 행정부 셋다운 역대 최장기록(2019년, 35일) 경신
	11.5.	[관세] 연방대법원,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 관세 소송 구두변론 진행 : 판결은 이르면 올해 12월 또는 내년 초 가능성 언급
	11.6.	[선박] 무역대표부(USTR), 선박 입항 수수료 부과 1년 중단 제안에 관한 공개 의견 요청
	11.6.	[핵심광물] 지질조사국(USGS), 2025년도 핵심광물 목록 연방관보 게재문 초안 발표 : 보론, 구리, 납 등 신규 추가 광물 10종 등 총 60종 포함
	11.10.	[수출통제] 상무부 산업안보국(BIS), 수출통제 적용 대상 확대(해당 기업의 50% 이상 지분 보유 자회사) 1년 유예(11.10~) 발표
	11.10.	[핵심광물] 북미무역연합(CNAT)·미국광업협회(NMA)·캐나다 상공회의소 등,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 및 對中 의존도 완화를 위해 USMCA 검토 시 핵심광물 협력 강화를 위한 별도 메커니즘 신설 제안(Inside U.S. Trade)

국가	일자	내용
미국	11.10.	[셋다운] 정부 임시예산안(H.R.5731), 美 상원 본회의 통과 : 하원 본회의 표결 가능성(11.12) / 하원 통과 후 대통령 서명 시 정부 폐쇄 공식 종료 예정
	11.11.	[USMCA] Jodey Arrington 하원 겸 에너지수출 코커스 공동의장(공화/텍사스), 멕시코의 USMCA 에너지 부문 약속 위반 행위에 대한 USTR의 시정조치 요구 의무화 법안(「멕시코 에너지 무역 집행법안」) 발의(Inside U.S. Trade)
	11.12.	[셋다운] 정부 임시예산안(H.R.5731), 하원 통과 : 대통령 최종 서명 시 정부 폐쇄 종료 / 역대 최장기 정부 폐쇄(43일)
	11.13.	[제재] 행정부, 이란 미사일 및 무인기 조달 네트워크 제재 발표
	11.13.	[무역합의] 백악관, 아르헨티나, 엘살바도르, 에콰도르, 과테말라와의 상호무역합의 프레임워크에 관한 공동성명 일괄 발표
	11.13.	[무역합의] 한국-미국 Joint Fact Sheet 발표
	11.14.	[무역합의] 백악관, 미국-스위스-리히텐슈타인 간 무역합의 프레임워크 관련 공동성명 및 Factsheet 발표
	11.14.	[관세] Trump 대통령, 커피·코코아·바나나 등 특정 농산물에 대한 상호관세 면제 행정명령 서명
일본	10.29.	[반도체] 도시바, 경제안보 위험 우려 조치로 中 반도체 기업 SICC와의 기술협력 철회했다고 보도(닛케이)
	10.30.	[희토류] 소지츠, 호주산 중희토류 수입 개시 및 일본 국내 수요 30% 가량 공급 계획 보도(닛케이)
	11.4	[제철] 일본제철 산하 US스틸, 미국 내 AI 인프라용 고급강 양산을 위한 수십억 달러 규모를 투자하여 생산 설비 신설 계획 보도(닛케이)
	11.5	[사이버보안] 일본-영국 정부, 사이버보안 분야 협력 MOU 체결
	11.6.	[희토류] 다카이치 총리, 미국과 미나미토리시마 희토류 개발 협력 검토할 것이라 보도(닛케이)
	11.6.	[경제안보] 정부, 경제안보추진법 2026년 내 개정 계획 발표 보도(닛케이) : (개정 주요 내용) ▲중요 개인정보 보호 체계 강화 ▲해저케이블 등 중요물자 재정 지원 ▲기간인프라 제도에 의료 분야 추가 등
	11.10.	[투자] 정부, 對日 투자 사전심사 강화를 위한 일본판 CFIS 신설 방침 보도(닛케이)
	11.14.	[조선] 정부, 조선업 재생에 약 1조엔 투자 계획 보도(닛케이) : 종합 경제 대책에 조선업 재생을 위한 총액 1조 엔 민간 투자 포함 방침
	11.17.	[일중관계] 중국의 일부 여행사, 일본행 신규 예약 중단 보도(닛케이)
EU	11.4.	[무역합의] 유럽의회 국제무역위원회, EU의 對美 시장개방 법안에 대한 유럽의회 차원의 수정안 논의
	11.5.	[기후] 환경이사회, 유럽기후법 개정안(2040년 기후 목표) 이사회 협상 입장 채택 : (주요 내용) ▲유연성 조치 명확화 ▲검토 메커니즘 강화 등
	11.5.	[기후] 환경이사회, 2035년 NDC(66.25~72.5%) 승인
	11.6.	[보조금] 집행위, 중국산 타이어 보조금 조사 개시 공표

국가	일자	내용
EU	11.5.	[운송] 집행위, EU 운송 부문의 경쟁력 및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운송 정책 종합 패키지 발표
	11.12.	[환경] 이사회 순회의장국 덴마크, EU 산림전용방지규정(EUDR) 시행일 1년 연기 타협안 마련
	11.13.	[경제] EU 경제재정이사회(ECOFIN) 개최 : (주요 결과) ▲소액 우편물에 대한 관세 면제 폐지 ▲경제회복기금 추가 지원 승인 ▲화학물질 안전성 평가 간소화를 위한 입법 패키지 승인 등
	11.13.	[공급망] 의회, EU 공급망실사지침(CSDDD)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 채택 : EU 이사회와 유사한 수준으로 실사 의무 완화
	11.13.	[지속가능성] 의회,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 수정안 채택 : 11.18일부터 EU 이사회와 협상 시작 예정
	11.14.	[우크라] 이사회, 우크라이나 기금(Ukraine Facility) 5차 지원 승인 : 18억 유로 규모 우크라이나 기금 지원 승인 / 총 지원 금액 313억 유로 규모
	11.18.	[세이프가드] 집행위, 특정 합금철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 부과 발표 : (조치 대상 국가) EU 역외 국가(EEA 회원국인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포함)
캐나다	11.3.	[배터리] 캐나다 넥스트스타 에너지 공장, ESS용 배터리 생산 시작(Financial Post)
	11.3.	[핵심광물] 정부, 46억 달러 규모 핵심광물 프로젝트 가속화(Reuters)
	11.4.	[예산] 정부, 2025-2026년 회계연도 예산안 발표
	11.10.	[구매] 정부, 캐나다산 우선구매(Buy Canadian) 정책 발표 : 정부 조달 및 인프라 투자 전반에서 캐나다산 철강, 알루미늄, 목재, 기술, 서비스 등의 사용 대폭 확대 방침
	11.13.	[투자] 정부, 제2차 국가건설 프로젝트(Nation-Building Projects) 발표 : ▲North Coast 송전선 ▲Kis Lisims LNG 프로젝트 ▲Crawford 니켈 프로젝트 ▲Nouveau Monde 흑연 2단계 프로젝트 등에 총 560억 캐불 규모 투자 예정
	11.17.	[예산] 캐나다 카니 정부 예산안 하원 표결 통과 및 최종 확정
	11.6.	[철강] 메르츠 총리, 철강 산업 위기 회의 개최 : (주요 의제) ▲철강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산업 입지 유지 ▲에너지 비용 절감 및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급 체계 확립 ▲보호무역 조치 강화 및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 등
스위스	11.14.	[무역합의] 스위스 및 리히텐슈타인, 미국과 관세 인하 MOU 체결 : 관세 39%→15% 인하 / 2028년 말까지 2,000억 달러 규모 직접 투자 계획
오스트리아	11.12.	[디지털] 정부, 디지털 주권 강화를 위한 정부 종합 대응 전략 발표 : (핵심 조치) ▲조달 기준의 주권성 강화 ▲국가 차원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 ▲지원 정책의 주권 고려 ▲오픈소스 기반 기술 전환 등
튀르키예	11.12.	[반덤핑] 무역부, 폴리스티렌 반덤핑 조사 결과 발표
아르헨티나	11.13.	[무역합의] 백악관, 미국-아르헨티나 간 상호 무역·투자협정 프레임워크 합의 발표
인도	10.30.	[희토류] 외교부, Hitachi Astemo India, Continental India 등 4개 인도 기업이 중국 수출 당국으로부터 희토류 자석 수입 허가 획득했다고 발표 : 미국으로의 재수출 및 군사용으로의 이용 금지 조건 하 수입 허가 획득
	11.3.	[연구개발] 모디 총리, 1조 루피 규모 연구·개발·혁신 계획 발표

국가	일자	내용
인도	11.5.	[AI] 전자정보기술부, 국가 AI 거버넌스 지침 발표 : ▲정보기술(IT)법 개정 ▲AI 위험평가체계 구축 ▲AI 사고 데이터베이스 설립 ▲감독기관 신설 등 포함
	11.10.	[조선] 코친조선소-HD현대중공업, 인도 해군 상륙함 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전략적 협력 MOU 체결
	11.12.	[석유화학] 화학비료부, 14개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품질관리명령(Quality Control Order, QCO) 철회 고시
	11.14.	[디지털] 정부, 디지털 개인정보보호법(Digital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2023) 시행을 위한 신규 프라이버시 규정 발효
	11.14.	[철강] 재무부, 베트남산 열연 평판강에 5년간 반덤핑 관세 부과 발표

■ 에너지

국가	일자	내용
폴란드	11.7.	[전기] 나브로츠키 대통령, 가정용 전기요금 인하 법안 하원 제출
핀란드	11.6.	[원자력] 에너지 기업 Helen社, SMR 건설을 위한 헬싱키 내 후보 부지 3곳 선정 발표
칠레	10.29.	[e-fuel] HIF Global社, 칠레 남부 마가야네스州 e-fuel 생산시설 구축 프로젝트 환경 영향평가 승인 획득
인도	11.6.	[원유] 對러시아 원유 수입량 유지 중(2025.10월 기준)으로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 일일 약 162만 배럴로, 전월 대비 2.53% 증가했다고 보도(Business Line)
	11.7.	[원유] 인도의 미국산 원유 수입 일일 56.8만 배럴로, 사상 최대 갱신(2021.3월 이후 최고치) 했다고 보도(Business Line)
	11.13.	[청정에너지] 청정에너지 기업 ReNew社, 안드프라데시에 총 93억 달러 투자 발표 : ▲6GW 태양광 잉곳-웨이퍼 공장 ▲2GW 양수저장발전소 ▲연 30만 톤 규모 그린암 모니아 공장 등 신규 투자 계획 발표
남아프리카공화국	10.28.	[전력] 전기에너지부, '통합자원계획(IRP) 2025' 관보 고시 : (주요 목표) ▲2042년까지 총 114GW 신규 발전설비 도입 ▲전력난 해소 ▲넷제로 2050 달성 등

「경제안보 Review」 2025년 발간 목록

발간호 (발간일)	구분	제목	저자명
25-1호 (2025.1.10.)	분석	‘美 조선·해운 강화 법안(SHIPS for America Act)’ 분석 및 시사점	최용호
	현안	美 하원 중국특위 보고서로 본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전망	황지현, 이재원
	연구동향	美 정보기술혁신재단 ‘트럼프 리스크 인덱스’ 보고서	이재원
25-2호 (2025.1.24.)	분석	글로벌 전력인프라 수요 확대와 경제안보	임산호
	현안	美·中 과학기술협정(STA) 개정 동향 및 시사점	김단비
	연구동향	AI 경쟁 관련 전문가 기고문 주요 내용	김수연
25-3호 (2025.2.14.)	분석	美 신정부 경제정책 동향의 경제안보적 시사점	유지영
	현안	미국의 그린란드 매입 시도 배경과 경제안보적 가치	유아름
	연구동향	FA ‘양자 미래를 선도하기 위한 경쟁’ 주요 내용	안수린
25-4호 (2025.2.28.)	분석	美 에너지 우위(Energy Dominance) 전략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이재원
	현안	중국 인공지능(AI) 굴기와 전략적 함의	김수연
	연구동향	미국 관세정책에 대한 전문가 평가	최용호
25-5호 (2025.3.14.)	분석	중국 메모리 반도체 산업 동향 및 경제 안보적 시사점	김단비
	현안	美 철강·알루미늄 추가 관세 조치 및 영향	황지현
	연구동향	FA, “The Real China Trump Card” 요약	유지영
25-6호 (2025.3.28.)	분석	「미국 우선 투자정책」 분석 및 시사점	안수린
	현안	2025년 중국 양회 경제 분야 주요 결과 및 시사점	김단비
	현안	美 USTR 조선·해운 분야 301조 조치 제안의 주요 내용 및 영향	최용호
	연구동향	Merics, 美-EU의 對중국 정책 우선순위 제언 보고서 발간	임산호
25-7호 (2025.4.11.)	분석	글로벌 LNG 동향과 미국의 LNG 정책	유아름
	현안	美 상호관세 부과 행정명령(4.2.)의 내용 및 평가	유지영
	연구동향	「미국의 AI 지배력과 전력 공급 병목 현상」	황지현

「경제안보 Review」 2025년 발간 목록

발간호 (발간일)	구분	제목	저자명
25-8호 (2025.4.25.)	분석	유럽방위백서 발표 동향 및 우리 방산업계 영향	임산호
	현안	트럼프 행정부의 무기 수출 행정명령: 주요 내용과 함의	이재원
	연구동향	「중국 이중용도 조선산업의 부상과 대응」	김단비
25-9호 (2025.5.09.)	분석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동향	황지현
	현안	미국 우주 기술보호협정(TSA) 체결 동향	김수연
	연구동향	「중국 성숙공정 반도체(foundational chips) 지배전략과 함의」	유아름
25-10호 (2025.5.23.)	분석	미국 상호·기본 관세 관련 국내 정치·법적 쟁점 분석	최용호
	현안	美 「AI 확산 규칙」 철회 및 AI 반도체 수출통제 동향	안수린
	연구동향	「예정된 분열?: 중국의 과잉생산에 대한 미국과 EU의 대응」	이재원
25-11호 (2025.6.13.)	분석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조치와 주요국 대응 : 지경학적 파급효과와 경제안보적 함의	이재원
	현안	경제안보적 관점의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동향 분석	임산호
	연구동향	「우크라이나의 광물자원: 평화와 재건을 위한 부실한 기반」	황지현
25-12호 (2025.6.27.)	분석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 상호의존성 분석: 미·중 통상 협의 배경 및 시사점	김단비
	현안	2025 G7 정상회의의 경제안보 관련 주요내용 및 평가	김수연
	연구동향	「수출통제: 미국과 인도의 우선순위 간 긴장 완화」	안수린
25-13호 (2025.7.11.)	분석	미국 2025년 예산조정법안(OBBBA)과 경제안보 : 청정에너지 및 반도체 산업 지원 조항을 중심으로	최용호
	현안	중동 핵심 해협(호르무즈, باب엘만데브, 수에즈 운하) 경제안보 리스크와 대응방향	유아름
	연구동향	중국제조 2025 (Made in China 2025) 전략은 성공했는가?	임산호
25-14호 (2025.7.25.)	분석	미국의 중국산 드론(UAS) 규제 동향	안수린
	현안	중국 광물자원법 개정 동향	김단비
	연구동향	「핵연료주기 관리에 대한 미국의 역할」	황지현

「경제안보 Review」 2025년 발간 목록

발간호 (발간일)	구분	제목	저자명
25-15호 (2025.8.14.)	분석	미국의 방산·핵심광물 연계 경제안보 모델 분석: UAE, 사우디, 우크라이나, DR콩고	유아름
	현안	주요국의 對美 관세 협상 결과 분석: 경제안보 관점	최용호
	연구동향	주요국 경제안보 정책 비교 연구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이재원
25-16호 (2025.8.26.)	분석	주요국 AI 정책 재편 동향 및 시사점	김수연
	현안	엔비디아 AI 칩(H20) 중국 수출 재개 관련 동향	안수린
	연구동향	「EU-미국 서비스무역의 중요성과 정책적 함의」	임산호
25-17호 (2025.9. 12.)	분석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기업 개입과 국가경제안보기금 조성의 함의	이재원
	현안	한일·한미 정상회담 주요 경제 성과	황지현
	연구동향	「3자 협력(한·미·일)을 통한 한국의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	김단비
25-18호 (2025. 9. 26.)	분석	주요국(일본-미국, EU-미국) 무역협상 공동성명 결과 분석	임산호
	현안	주요국(EU, 영국, 캐나다, 일본) 디지털 규제와 미국의 통상 대응	유아름
	연구동향	「기술혁신이 조선업 역량의 핵심인 이유」	김수연
25-19호 (2025. 10. 17.)	분석	중국의 ‘내권식(內卷式) 경쟁’ 억제 정책: 중국 내 과잉경쟁 규제 동향 및 시사점	황지현
	현안	미·중 AI 인프라 투자 현황과 경제안보적 시사점	이재원
	연구동향	미국 신흥바이오기술국가안보위원회 「바이오 기술의 미래 설계」 보고서 분석	최용호
25-20호 (2025. 10. 31.)	분석	중국의 핵심광물 수출통제 강화 조치 분석 및 시사점	김단비
	현안	조선·해운 분야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제재 공방	최용호
	연구동향	美 CRS 「원자력 에너지 및 기후변화 완화」보고서 주요내용	안수린
25-21호 (2025. 11. 14.)	분석	한미 정상회담 경제분야 분석	안수린
	현안	미국-중국 무역합의(10.30)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임산호
	연구동향	美 Stimson Center 「중국의 경제적 강압과 미·일·대만의 대응전략」 보고서	유아름

「경제안보 Review」 2025년 발간 목록

발간호 (발간일)	구분	제목	저자명
25-22호 (2025. 11. 28.)	분석	넥스페리아 사태의 경제안보적 시사점	임산호
	현안	미국의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강화 협정 체결 동향 및 시사점	김단비
	연구동향	獨 KAS 보고서, 「동남아에서의 경제적 우위를 둘러싼 중-일 경쟁」	이재원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
Center for Economic Security and Foreign Affairs

온라인 다운로드 -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 게시판

https://www.mofa.go.kr/www/brd/m_26799/list.do

경제안보 Review - 메일링 서비스 신청

cesfa@mofa.go.kr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
Center for Economic Security and Foreign Affairs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CESFA, Center for Economic Security and Foreign Affairs)는
공급망, 첨단 기술, 전략 산업 등의 주요 경제안보 현안 대응에 필요한 정책 분석과
국내외 협력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제안보 Review는 격주로 발간되는 경제안보외교센터의 정기 발간물로,
경제안보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정확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전달하여
민관합동의 경제안보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본지의 내용은 외교부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